

로마서 4 강

16 절부터 제가 몇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 장 16 절 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배웠죠? 복음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 장 2 절~ 3 절에 보면 나오죠? 첫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둘째, 성경대로 장사 되셨다가. 세 번째,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 나셨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디테일하게 배웠죠? 그런데 구원이, 지난 번에 디테일하게 얘기 했지만,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이죠? 죄로부터 구원했단 얘기는 죄가 없어진거예요. 죄가 있는 장소에 우리가 있었는데 나왔어요. 죄로부터 구원됐고 그 다음에 둘째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이죠? 심판은 첫째 뭐죠? 지옥이죠. 둘째는 지옥이 불못에 떨어지죠? 나중에. 그렇죠? 그랬다가 세번째는 죄의 능력,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죄의 능력으로부터 이겨야되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네 번째는 죄의 임재로부터,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천국가게 될 때, 죄있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간단하게 설명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엄청난거예요. 지옥에 가던 사람이 돌이켜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스스로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는거예요. 들었다 갔다 놓는거죠.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어린 아이가 볼 가운데로 막 뛰어가는데 그냥 달려가서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꼬집어 내야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큰 능력,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인데 이걸 축복. 복음. 복된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복된 소식인데 이거는 죄인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베드로전서 1 장 23 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쳐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결국 거듭난다, Second birth,

중생. 거듭난다. 이것을 regeneration. 이 뜻이 뭔가하면 완전히 땅을 regeneration 한다는건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 가지고 다 걷어내고 아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워지는거. 우리 영이 죽었는데 완전히 영을 기경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거예요. 이게 중생이거든요. 그런데 거듭나게 하는데 씨가 바로 뭐냐? "씨" 거듭나게 하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나는 것도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가서 꼭 나오는 것 처럼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만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는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뭐냐?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 그렇잖아요. 생명을 주는 씨가 들어가서 아이가 태어나야만 음식을 먹어요. 마찬가지로요. 거듭나게하는 복음을 내가 먹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 육신이 살지 못하면 음식을 못 먹는 것 처럼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 봐도 재미가 없어 별로. 이거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생명 이것 먹어야 되요. 이것 씹어야돼. 아침마다 먹을 때 힘을 얻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어요. 하품만 나고 읽기도 싫고 그래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뭐니까? 말씀이 땡기는거예요. Craving,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영이 병든 사람, 영적으로 빌빌하는 사람은 먹기 싫어해요. 이건 비참하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평생 약해 가지고 밥도 못먹고 그냥 소화도 못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비참해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중풍병 걸린 사람도 있어요. 걷지를 못해요. 항상 찢룩찢룩해요. 쓰러져요. 영적인 절뚝발이도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도 있습니다. 살아 있어도 눈을 감고 있으니까 평생 아무 것도 못 보는 사람 있어요. 영적인 소경도 있어요.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이왕 거듭났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복음, 너희가 거듭난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다시말해서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씨는 바로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믿을 때 말이에요 여러번 얘기 하지만 천지 창조할때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 빛이 있었던건 뭐죠? 공중에 하늘에 있는 하늘이 빛을 받아드린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물에는 각종 물고기가 있으라 하니깐 물이 순종하니깐 물고기가 생긴거예요. 또 땅은 각종 채소를 내라. 열매를

나는 각종 과목을 내라 하니깐 그대로 냈어요. 땅도 순종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뭐라 그러죠? 땅같다
 그러죠. 옥토도 있고 돌작발도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들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들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받아 들인 사람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럼 주께서 돌봐주신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안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많은데 안되는거예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또 염려가
 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뭐가 잘되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뭐가
 잘되던 안되던 상관없이 없는 사람이 되어돼요. 속에 기쁨이 있고 속에 힘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 밥이지요 항상.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어도 맨날 마귀한테 쫓겨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는데 좀 제대로
 서가지고 사람 구실을 해야되는데 매일 죄나 짓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자녀가 말씀을 먹고 강건해 가지고 말씀도 좀 좋은 말씀, 빠진 말씀말고
 제대로된 말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 누가 몇일된 우유를 먹이는 사람이 어딴어요? 신
 냄새 맡아보고 아 쉬었다 버리죠? 아 조금 쉬었는데 아깝다. 그런 사람 없어요 부모님들의 심정은 버리죠.
 신건 안 먹입니다 절대. 이 말씀도 정말 깨끗한 말씀을 그냥 준비해 가지고 먹여야돼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좀 설교 좀 잘해볼라고 미국 목사님들 테이프 수천 장을 사다가, 돈도 많아요 그 양반.
 그래가지고 그냥 들었대요. 계속 듣고 배껴서 설교 했단 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기도 하는데 주님이
 그러더라. 야 너는 내 자녀들한테 매일 흰 밥 먹이고 찬 밥 먹이냐? 좀 네가 만들어서 네가 좀 돌솥밥
 만들어 가지고 따끈따끈해서 먹이지. 왜 남의 것 가지고 왜 자꾸 흰거 먹이고 왜 찬거 먹이냐 그러더라요.
 나중에 이분이 회개를 하고 다 버렸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주 따뜻하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했죠?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지 않는다.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뭐라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심, 죽으심 이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뭐라 했죠? 이는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 장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이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모든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세가지가 있어요. 뭐 부시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거예요. 그게 뭘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해요. 누가 해결해요. 나와보라해요. 인간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요? 안됩니다. 그 다음에 죽는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해요. 큰 소리 뽕뽕 치는 사람도 그냥 암 걸리면 그냥 가요. 힘이 없어요. 영웅도 Alexander 도 갔어요. 30 에 갔어요. 그 다음에 뭘니까?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말이죠? 지옥이라는 곳은 쉽게 말하면 쓰레기 장이야. 저 썩은 것들. 냄새나는거 우리 어디에 버립니까? 쓰레기장에 버리죠. 싱싱한건 어디에 둬니까? 냉장고에 두죠. 마찬가지로 천국은 싱싱한것 보관하는 곳이고 지옥은 죽은것들 냄새나는 죄인들. 냄새 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거 아니야, 불 가운데 집어 넣어야 냄새 안날거 아니예요. 그래서 거기다 버리는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힌놈의 골짜기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계속 불이 타요 거기서. 계속 연기가 나는거야. 힌놈의 골짜기. 이게 심판이에요. 죄와 사망과 심판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지옥 심판이에요. 불못이죠. 이것은 누구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밖에 안돼요. 왜?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신 분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죠. 나도 죄 짓고 저도 죄 졌으면 용서 못해요 서로가. 똑같은 죄인이니까.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가하면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후회해도 해결이 안되는거야. 여러분 후회와 용서는 다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쳐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게 되는거예요.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용서 해주는거예요. 씻어주는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지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목욕을 못해요. 때가 꼬질꼬질해요. 누가 목욕 안시켜줘요. 누가 목욕 시켜줘요 안시켜줍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목욕탕에 집어 넣고 때를 벗겨주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게 죄를 해결 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비참한거예요. 죄는 존재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붙는거예요. 죄가 마음에 탁 안착하면 죄를 짓는거예요. 사망도 이게 존재예요. 사망이 옵니다 여러분. 다같이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 장.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데 요한계시록 20 장 14 절 보겠습니다. 11 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있는데] 죽은 자들이 서있어요.**

아멘? 죽음은 육신을 얘기하는게 아녜요. 영을 혼을 얘기하는 거지. 죽은 혼들이 서있는 거예요. **[책들이 퍼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퍼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그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왜 그래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됐기 때문에 용서를 못받아 행위대로 다 심판받아요. 우리는 왜 심판을 안받느냐?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줬기 때문에 우리 심판을 안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더라. 행위록.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14 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이 뭐예요? 사망도 던져요 하나님. 사망을 없애버릴려면 어떻게? 사망을 불못에 던져버려야돼요. 이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때 주님의 몸에 다 죄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죠? 우릴 사랑하지만 죄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죄만 올라가고 우리 살려준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도 죄도 전부 떨어지는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에 세상 죄를 다 전부 주님 몸에 전가(轉嫁)해서 모든 민족들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그 잔을 마셨어요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잔은 잔을 붓기만 하면 모든 민족들이 전부 지옥 갈 수 밖에 없는 잔이에요. 쓴 잔이에요. 그 죄의 잔을 주님이 마셨어요. 그리고 죽으셔 가지고 장사되고 어디갔느냐? 지옥까지 내려갔어요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가 가지고 미가서 7장에 보면 네 모든 죄들을 깊은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우리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7 장 18 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의 남은 자의 죄과를 간과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니이가?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고 그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야곱에게는 진리를 아브라함에게는 자비를 행하시리이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깊은 바다에, 이런 뭐 태평양 뭐 대서양이 아니고 깊은 바다 저 지옥 속으로 던져 버리는겁니다. 끝이 없는 곳으로. 던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장사 된거예요. 장사 되가지고 사흘동안 그곳에 가서 가지고 다 던져 버린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날에 된 것은 여러가지 뜻이 있어요. 셋째 날에. 호세아서 보면 우리를 이틀 후에 일으키시고 셋째 날에 살리신다. 여기 셋째 날

뜻에는 2000 년이 지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왕국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산다. 이런 뜻이 셋째 날에 있어요. 둘째 날도 아니고 넷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 이런 뜻이 있어요. 살아나셨죠? 왜 살아났어요? 죄를 다 던져 버렸죠. 죄가 없는 분이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죽을 때 죄가 없어졌죠. 던져버렸죠? 못박혔죠? 그래 가지고 살아 나실 때 다시 우리 죄를 떨어버리고, 죄를 떨어버리니까 살아나야돼요. 죄가 없으면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영생하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아담이 죽은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930 세로 죽었요. 그러나 죄만 없어지면 살아나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죽는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신은 죄가 이미 박혀가지고 어떻게? 마치 알콜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계속 먹으면 이 몸에서 박혀가지고 이기지 못하는 것 처럼 죄가 이 몸속에는 완전히 퍼져가지고 암이 퍼진 것 처럼 이 몸은 버리는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버리면 썩는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새몸을 일으켜 주시는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사람이 되가지고 예언한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죄를 다 떨어 버리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사실을, 아, 그래요? 하고 받아 드리면 받아 드릴 때 이 말씀이 와요. 주님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복음을 받아드리는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죄를 없애 버렸고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어졌고 사망이 없어지니까 심판이 필요 없죠. 죽은 자가 심판받지 산 자는 심판 안받아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만 없어지면 사망도 없어지고 심판도 없어져요. 이게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즉 말씀이 들어오시면 내 죽었던 영이 살아 나게 되고 내 혼은 지옥가던 혼이 뒤로 돌아 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되고. 내 육신도 이제는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았지만 내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음으로 육신도 이제 점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 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 어 그렇습니까? 정말 죄의 문제, 사망과 심판만 해결해줄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안그렇습니까? 이 미국에 체재하는 것도 어떤 분이 옛날에 브라질에서 와가지고 그냥 살던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날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한국 사람이 이민국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은퇴하면 뭐 세 사람인가 그냥 무조건 영주권을 줄 수 있대요 영주권을. 무조건. 그래서 그냥 받았다는거예요. 이게 뭘니까? 그렇게 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과 심판을 해결해 주겠다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무슨 짓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는데. 이 사실을 받아 들이రా는데. 이 사실을 안 받아 들이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서가지고 내 죄를 다 떨어버리고 올라오셔서 가지고 살아나서 가지고 믿기만 하면 성령 주셔서 가지고 복음의 씨가 들어가가지고 나를 살려 준다는데 이거 안믿어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못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땅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딱 전하기만 하면 받을 사람은 받아 들이고 안받을 사람은 안받아 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 능력이 나타나고 안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 전하기만 하면 되는거예요. 후레쉬를 비추면 되는거예요. 그러나 빛을 받아 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 들이고 막는 사람은 도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전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능력이 되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원 받고 역사를 일으키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 장 16 절이 그렇게 중요한거예요. 이 말씀 하나 하나가 생명인데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그외에 다른 모든 말씀들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겁니다. 그래서 2 절 보게 되면 **"이 복음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으니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러면 첫번째 믿음은 뭐고 두번째의 믿음은 뭐가? 우리 다같이 하박국 2 장 4 절 보겠습니다.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구약시대에는 자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욥도 자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니엘도 자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에스겔도 자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자기 믿음이 뭘니까? 신념 아니에요 신념.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구약시대 믿음이예요. 첫 번째 믿음은 구약시대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신약시대 믿음이예요.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에베소 2 장 보겠습니다. 8 절 보면. 1 절부터 보죠 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죄들**

가운데서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 주시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엔 자기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영접하고 영이 거듭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오는거죠 믿음이. 아멘. 대개 보면 알고 믿을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면 알게 돼서 믿게 되는거예요. 아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 몰라요. 신학이란것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은 이걸 잘못 된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성령이 지혜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거예요. 아멘. 인간의 이성 가지고서는 안되는거예요. 고린도전서 1 장 18 절 보겠습니다. 18 절 부터.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얘길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받는다. 구원 받은 사람은 능력을 아는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아 예수라는 사람이 뭐 하나님인데 죽었다. 아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피 흘리고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뭐 진짜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려고 떠드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는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긴 왜 죽어 살리지. 어리석게 보이는데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왜 죽으셨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왜 살리셨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죄는 없애고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 장 19 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세상

죄인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랬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계시는 것이다. 세상 수학자들 철학자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그건 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이나 다르게 없죠. 20 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세상 지혜입니다 이걸. 지혜가 세상 지혜가 있죠. 철학자들 종교인들. 21 절. 종교인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하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 물 위에 걸은게 아니고 주님이 해변가를 거니는데 달이
 비추니까 그림자가 물 위에 걸어갔다. 그게 아주 자기는 그게 똑똑한거야. 니체는 평생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죠. 그가 죽으니까 여러번 얘기하지만 벽에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썼대요.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썼다를 이제 니체가 죽으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밑에다가 니체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썼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야. 얼마나 그 그 사람이 존경 받아요, 뭐 쇼펜하우어 뭐 이런 사람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 있죠 그 사람을 여러분 학교 다닐때 많이 듣고 존경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것만 얘기 하니까.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예요. 뱀을 섬기던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그가 뱀에게 제물을
 드리고 자살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것만 싹 빼놓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멋있게 들리는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속았잖아요. 이 세상 학교에선 뭘 가르쳐요 세상 죄를 가르쳐요. 세상 명철을
 가르쳐요. 안된 얘기지만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너무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쫓
 불안한거야. 좀 바보같은 애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 들이는게 훨씬 나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대학 공부 시켜 놓으니까 하나님 보다도 세상이 더 가까운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복된거예요. 아멘? 좀 병신같은게 좋아요 세상에선. 그래야만
 주님의 그 지혜를 받아요. 내가 병신이니까. 똑똑한 사람은 안받아 들인다고. 내가 요즘에 최근에
 깨달았어요. 철학과 전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 있는 철학자들을 쭉 보면서 그 아주 디테일한 내용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아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이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하면서 세상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우고 버려야됩니다.
 21 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우리가 어제도 가가지고 전도의
 어리석음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죄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거 믿으면 영생 받는다.

영접하니까 여기에 하나님 주님이 계신다. 바보같죠 보면. 병신 같지. 그러나 주님은 일대일로 왔죠. 일대일로 만났습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한 겁니다 이게. 사람 동원하는 것 보다는 일대일로 가서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도 사람이 되가지고 맨발로 사마리아로 뿔악별에 걸어가셔서 여인 한명 만나 가지고 가장 피곤한데 식사도 안하시고 그 여인에게 간절하게 복음 전하셨는데. 빌립도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천사에 이끌려 가지고 그 광야 길을 그 뿔악별에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 한사람을 전도했는데.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겁니다. 아멘? 이게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22 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창피한거요 오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창피한거야 자기네들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죽기는 왜 죽느냐? 어리석어 보이는거예요. 우리에게겐 뭐예요? 뭐라했죠? 24 절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예요. 안 보여도 바라는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예요. 꼭 눈에 보이는것만 찾는 사람은 세상 사람, 안 보이지만 주님이 약속한걸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고린도전서 2 장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적도 없었느니라.”** 마음속에 아무리 살펴 봐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거 우리 마음 속에 있는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치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해 알게한다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자만 아는거예요. 기도 안하는 사람은 맨날 본 것만 보고 사니까 없으면 막 이려고, 있으면 으험 그러고 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없어도 할렐루야 감사하는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 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예요. 기도 안하고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24 시간 기도해요. 주님! 그래요? 주님 주님...하고 계속 해야지. 호흡이예요 호흡. 호흡이 10 분만 끊어지면 죽어요. 주님과 교통하는것 10 분 끊어보세요. 딱 끊어 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네? 25 절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당연한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바보같이 되셔도 인간 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같은 사람도 고양이 보다 낫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아무리 바보래도요 고양이 보고 이놈 그럼 도망간다고. 야 내가 바보야? 하고 달려들지 않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이 약하다 손치더라도 그럴리가 없지만 사람보다 낫거예요. 당연한거예요. 여기 보세요. 1 장 26 절(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권력있는 자도 많지 않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바보같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 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전쟁하고 난리쳐도 우리는 세상 안에 안살아요. 지금 한인타운에 이번에 전쟁 난다 그러니까 라면도 사재기 하고 뭐 막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는 안 샀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요? 이 육신만 벗어버리면 아주 그리스도안에 들어가는거고 육신이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거지. 이거 우리 죽는게 뭐예요? 이거 벗어버리는거예요. 껍데기. 그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죽음이 좀 두려워 가지고 주님! 죽음이 어떤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기가 붕 떠가지고 가볍게 되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 죽는 것은 기분 좋은거구나. 이거 벗어 버리니까 이거. 골치 아픈것도 없고 pain(고통)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싹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장례식 갈 때 요렇게 누워있는 사람은 부러워요. 참 편하시겠습니다. 지난 번에 정자매님 보니까 너무 얼굴이 좋더라고요. 얼마나 편하실까요? 아 진짜야 나 농담 아니예요. 그러나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 살고 있는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좋다. 권사님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권사님이 계시는 것은 몸이 아프지만 기도하라고. 그렇죠? 기도하라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만 사랑해야돼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사랑할 필요없어요. 가면 사랑할 것도 하나 없고요 공부한거 사랑할 것도 없고요. 어떤 목사님이 박사학위 3 개 있는데요 그 사람 소개할 때 어디가면 무슨 무슨 교회 담임목사밖에 없어요. 박사가 3 개나 있는데. Stanford 전자공학 박사죠 심리학 박사죠 교육학 박사예요. 그런데 신학교 학장 이사장인데도 거기다가 무슨 교회 담임목사지, 절대 앞에다가 바가지 안붙이더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주 안에서만 사랑하라. 아멘? 저도 뭐 설교하라 그러면 뭐 경력을 달래. 온누리 복음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것밖에 안줘요. 학교 물어보면 학교 알아서 뭘 할려고 말이야. 학교에서 배운거 전부 형편없는 것만 배웠는데. 아무 육체라도 그 면전에서는 사랑할 것이 못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셔서 우리에게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하나님의 지혜가 뭘니까?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이예요. 아멘? 우리 하나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11 장 1 절 2 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왕의 아버지니까 이새의 줄기니까 다윗을 포함해서 쪽 가다보면 누구까지 와요? 예수님까지 온다 말이에요. 거기서 싹이 난게 뭘예요? 생명이 났다 이거예요. 그게 가지다. Branch, 그 branch 에 붙기만 하면 우리도 생명을 받죠. 2 절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성육신 하신 주님.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여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아멘. 성령받은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 합니다. 말씀을 두려워 한다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그대로 하죠. 두려워합니다.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덮어 놔요. 주의 말씀은 덮어놓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있습니다. 지혜 명철과 계획과 능력. 이런 영이 있습니다. 일곱까지 영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복음, 누구에게나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가요.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니까 spanish 으로 할때 나는 spanish 로 복음만 알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이제. 어떤 분은 다 외우고 나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럼 죽어도 안되는 거예요. 내가 막 spanish 를 외우려 했으면 안됐을 거예요. 그러나 외우지 않고 계속 읽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고 발음도 mexican 같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건 뭐 성령이 도와주신거니까. 여러분 그럴 때 참 얼마나 특권입니까. 우리에게 준 특권. 우리가 감사하며 특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지금까지도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달려갈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요란한 세상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몽땅 이리 올라와라 말씀하실 때 눈 깜짝하는 사이에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 아버지의 새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눈물도 고통도 없고 걱정 근심 없는 그 곳에서 사는 소망을 주셨으니 아무리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처럼 기운을 내겠나이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죄를 이기신 주님, 사탄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 하겠나йка. 일곱번 넘어져도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오니 우리는 마지막 때 분명히 일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